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방치 언제까지

68억원 들여 부지 매입후 사업 중단...부지환매 요구도

한우단지 조성 건의 거부...어정쩡한 전남도 태도 비판

신안군 도초도 일대 '사파리(safari) 아일랜드' 개발 방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생동물들을 들여와 섬을 사파리로 만들겠다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뒤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후 부지 환매 요구에 이어 신안군이 최근 도초도 사파리아일랜드 부지를 대규모 한우단지조로 만들겠다는 건의 등이 이어지면서다.

전남도는 한우단지 조성계획의 경우 부지 환매 요구와 맞물리면서 '불가' 입장을 통보했지만 마땅한 향후 대책이 없어 고민 중이다.

◇한우단지 조성 건의...불가=신안군은 지난달 중순 신안 도초도 발매리 일대 80만1000㎡ 규모의 부지에 5000마리의 동물복지형 한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부

지 장기임대(20년)를 전남도에 건의했다가 거절당했다.

신안군은 도초도 부지가 친환경 조사료 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적 여건을 갖춘 만큼 친환경적 동물복지형 한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6차 산업 모델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안군은 애초 부지 무상임대를 건의했다가 한 차례 거절당한 뒤 장기임대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며 사업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 농민들이 공동출자하는 형태로 법인을 구성한 뒤 용자를 받고 군은 보조금 형태로 시설자금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15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신안군 구상이다.

전남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관광단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을 검토해온 데다, 해당 부지에 대한 환매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한 점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위기다.

관광단지 개발 계획 뿐 아니라 '부지 환매' 요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내리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우단지라는 새로운 사업을 검토할 겨를이 없다는 얘기다.

◇부지 돌려달라 민원...내년에야 종합 검토=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신안군 도초도 발매리 일대 365필지를 '사파리 아일랜드'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에 나섰고 68억원을 들여 254필지(80만2000㎡)를 사들였다.

하지만 육지 동물원과 차별화, 배로 1시간 가까이 들어가야만 하는 접근성 문제, 민간 투자자 유치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부지를 되팔라는 환매 요구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1조)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했을 때에는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이같은 규정을 내세워 토지소유자의 환매 요구를 접수 받은 뒤 전남도에 협의를 권고한 상태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당시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환매 의사를 묻는 조사를 거쳐 개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수산업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어정쩡한 태도만 취하고 있는 전남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섬을 달린다, 자전거로

신안군 다이아몬드제도시 9월 8~10일 자전거대회

섬을 무대로 한 자전거 대회가 열린다. 신안군은 오는 9월 8일부터 3일 일정으로 다이아몬드제도시 일대에서 '사이클링 신안 2017'대회를 연다.

다이아몬드 제도시 신안군 자은·안태·안좌·팔금·비금·도초·하의·신의·장산도 등 다이아몬드 형태를 띠고 있는 섬을 말한다. 이번 대회는 '섬을 달린다'를 주제로 두 개 이상의 섬을 잇는 국내 최초 이벤트라는 점에서 10분 만에 참가자 모집이 마감되는 등 자전거 동호인들의 관심이 쏠렸다.

속박과 식사, 여객선 정원, 자전거 운송 등을 감안해 150명만 참석할 수 있는데다, 9개의 섬의 해변길, 노들길 등을 따라 다도해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라는 점도 참가자들이 몰리는 데 한몫을 했다는 게 지역 스포츠계 분석이다.

참가자들은 첫째날 비금~도초 일대 70km를 달리고 2일차 팔금~안태추포~자은도에 이르는 75km 구간을 지난다. 마지막 3일차에는 안좌도 53km의 페달을 밟는다. 신안군은 섬 자전거 여행의 매카를 목표로 12개 섬, 7개 코스, 455km의 자전거 코스를 지난해 개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엑스포공원물놀이장

양서파충류생태공원

함평군 피서객 맞이 돌입

함평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표적 관광지인 엑스포공원물놀이장과 돌머리해수욕장,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엑스포공원물놀이장은 지난 8일 개장, 다음달 15일까지 피서객 맞이에 들어갔다. 5000㎡ 규모에도, 파도풀, 키즈풀, 유아풀, 워터 슬라이드까지 갖췄다. 수심도 깊지 않아 아이들 물놀이에 적합하다는 게 군 설명이다.

하루 3000t의 물을 순환식으로 정화하고 안전요원도 늘리는 한편, 쉼터와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함평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표적인 관광지의 피서객 유치에 나섰다. 사진은 엑스포공원물놀이장. <함평군 제공>

돌머리해수욕장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손님 맞이에 나선다.

돌머리해수욕장은 지난해 전국 청정해수욕장 20곳에 뽑힐 만큼 깨끗한 수질과 갯벌 뿐 아니라 시원한 소나무숲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욕장 주변에서는 뱀장어 잡

기, 개막이, 바지락 캐기, 갯벌생태체험 등 여름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변탐방로를 산책하거나 오토캠핑도 즐길 수 있게된다.

뱀 모양의 전시관인 양서파충류생태공

원도 눈길을 끈다. 국내 최초로 뱀과 파충류를 소재로 조성된 곳으로, 능구렁이, 까치살모사 등 국내종과 외국종인 킹코브라, 사하라살모사, 돼지코뱀, 아나콘다까지 91종 700여 마리를 볼 수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함평군 '노르딕워킹 건강교실' 큰 호응

함평군이 운영하는 '노르딕워킹 건강교실'<사진>이 호응을 얻고 있다.

노르딕 워킹은 노르딕 스틱을 이용해 정면을 바라보며 걷는 운동으로, 상·하체를 고르게 사용, 체중 분산과 무릎관절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육 증가 및 자세교정에도 도움을 줘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게 함평보건소측 설명이다.

함평군 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12주 일

정으로 매주 3차례씩 함평천변길과 수산봉둘레길을 걷는 노르딕운동교실을 운영했다. 보건소는 25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몸무게와 체지방량 감소 뿐 아니라 참여자 절반가량의 골격근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함평군보건소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11월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가마미해수욕장 비치발리볼·영화 즐긴다

영광군 즐길거리 다양화

올 여름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비치발리볼 대회를 즐기거나 해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개장한 가마미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가마미해수욕장은 영광 9경중 하나로 1km에 이르는 반달모양의 백사장, 낙조

가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영광군은 또 63억원을 들여 물놀이시설, 오토캠핑장(10면), 몽골텐트 등을 갖췄다.

영광군은 특히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청정 갯벌을 활용한 뱀장어 캐기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비치발리볼 대회, 해변영화·해변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기로 했다. /영광=이종운기자 jylee@

신안군 노사情 흐르는 직장문화 만들기 '정직 캠페인'

신안군이 공무원노조와 함께 정이 흐르는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에 나섰다.

신안군은 최근 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와 함께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 펼쳤다.

노조원들은 신안군 대표 특산물인 낙지모형 탈을 쓰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인사로 반겼고 오재선 부군수도 출근하는

직원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구성원간 메말라가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 직원 상호간 배려·신뢰의 인사 나누기를 통해 경직된 직장 문화 대신, 친밀한 업무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급 매”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즉시 입주가능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9천 9백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78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나주, 싼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4200만원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H. 010-3605-5000